



신안 바람·햇살이 만드는 '천일염' 천일염 생산 막바지인 8일 신안군 압해읍 고이도 염전에서 한 염부가 소금을 모으고 있다. 천일염이란 일정한 공간에 바닷물을 가두어 놓고 햇볕과 바람으로 수분을 증발시키는 방식으로 얻는 소금이다. /신안=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고교생 외국어에 더 익숙

'누리꾼 보다 네티즌' '임무 보다 미션' 자주 사용

“누리꾼보다 네티즌, 임무보다 미션, 참살이지역보다 슬로시티가 더 익숙해요.”

광주지역 고등학생 10명 중 7명은 우리말인 순화어보다 외국어를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광주 서강고등학교(교장 박주영) 동아리 '한글누리'가 한글날을 맞아 실시한 '광주 고등학생들의 외국어와 순화어 사용실태 인식 조사' 결과를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순화어보다 외국어를 더 자주 사용했다.

3개 고교 학생 606명에게 외국어에 대응하는 순화어 6쌍을 제시하면서 평소 사용하는 단어를 고르라는 질문에 70.7%가 외국어를 자주 사용한다고 답했고, 29.3%만이 순화어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누리꾼'보다 '네티즌'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90.4%에 달했고, '임무'보다 '미

션'을 사용한다는 응답은 78.5%로 나타났다. '참살이 지역'을 뜻하는 '슬로시티'를 쓴다는 응답은 89.1%, '늘사랑 상품' 대신 '스테디셀러'를 쓴다는 응답은 83.5%, '지명적 약점'인 '아킬레스건'을 쓰는 응답은 74.9%로 나타났다.

반면, '뽕뽕이' 대신 '애어 캡'을 쓴다는 응답은 7.6%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외국어를 쓰는 학생 중 익숙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은 63.8%, 순화어를 쓰는 학생 중 익숙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은 41.1%에 그쳐, 외국어가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익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화어를 만들 때 중요한 것으로 본래 의미 보존(31.4%), 간결하고 짧은 단어 구성(25.6%)을 꼽았다.

서강고 한글누리리는 이번 연구결과를 보완해 다음달 열리는 소논문 발표대회에서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글창제 조금만 늦었더라도...

사슴·닭 등 동물이름 23개 우리말 이름 못 부를 뻔

사슴, 닭, 호랑이 등 상당수 동물 이름이 고유어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훈민정음의 탄생 덕분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정남 경희대 한국어학과 교수는 8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569돌 한글날 기념 제7회 집현전 학술대회'에서 “한글 창제가 조금만 늦었더라도 상당수 고유어 동물 이름은 한자어로 대체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물 이름이 표기된 가장 이른 시기의 한글 문헌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당시 용자례(글자 보기)로 제시된 94개 어휘 중 23개가 동물 이름이었다.

김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단어의 용례를 제시할 때 동물의 이름을 거론하는 일이 매우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사람들에 동물 혹은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짐작하게 한다”고 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표기가 바뀐 명칭도 있다. '기러기'는 15세기 '그력', 16세기 '그러기'에서 17세기 '기러기'와 '그러기'가 혼용되다가 18세기 들어서 지금의 이름이 정착됐다.

김 교수는 “한국어는 한자어 어휘가 그 수호나 체계 면에서 방대함에도 동물명의 상당수는 고유어로 이뤄져 있다는 점에서 동물 이름 특성에 대한 한국어학적 조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전택 한국교원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상풍 이름에 쓰인 한글의 다양한 모습을 분석했다.

'누네편네', '파시통통', '까마른' 등 실제 발음에 따라 형태소의 끝 자음을 문법형태소의 초성으로 표기하는 연철 표기가 눈에 띄었다. 또 동사와 부사를 상풍 이름('뿌서뿌서', '따음')에 쓰거나 한자음을 활용('잡침', '첫눈뵤')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연협뉴스

우리말 달인 뽑고 세종대왕과 사진 '찰칵'

광주·전남 한글날 행사 다채

조선족·고려인과 책 나누고, 세종대왕과 사진 찍고, 우리말 달인도 뽑고...

9일 훈민정음 반포 569돌을 맞아 광주·전남에서 우리말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제2회 한민족 책 나누기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시교육청은

이날 행사에서 조선족, 고려인 등 동북아 한민족 아이들에게 전달할 한글 책을 현장에서 기증받아 전달한다. 또 중고 장터와 북한 음식 체험 등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행사도 연다.

한글 창제의 큰 뜻을 기리고, 바르고 고운 국어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1회 광주시 우리말 겨루기 한마당'도 이날 오후 1시30분 광주시청 시민 숲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전남대 국어문화원

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시민, 학생 50팀이 참가해 우리말과 글, 전라도 사투리 문제를 풀며 실력을 겨루게 된다.

전남도도 이날 오전 10시 전남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제3회 우리말 겨루기 대회'를 연다.

이날 행사는 우리말 달인 선발대회와 우리말 가족 탐험대 두 분야로 나뉘어 열린다. 우리말 달인 선발대회는 초·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족 100팀이 참가해

맞춤법, 표준어, 순 우리말 표현, 전라도 사투리 등의 실력을 도전 골든벨 방식으로 겨룬다. 우리말 가족 탐험대는 유치원·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 40팀이 참가해 6개의 우리말 과제 임무를 빨리 달성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순천시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내 최대 한글 조형물인 순천만정원의 '꿈의 다리'와 남문광장에서 한글과 순천만국가정원에 대한 퀴즈, 단어 찾기를 체험, 꿈의 다리에서 만나는 즐거운 한글 이야기 등의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윤현치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3 해질 18:06
 일출 03:00 일몰 16:09

새벽 한때 빗방울
 흐리다가 낮부터 맑아지겠다.

◇지역별 날씨(°C)

광주	15/21	보성	14/21
목포	15/20	순천	15/22
여수	17/22	영광	14/21
나주	14/22	진도	16/22
완도	15/21	전주	15/21
구례	14/21	군산	15/19
강진	14/20	남원	14/20
해남	15/21	축산도	16/19
장성	13/20		

◇바다 날씨

지역	해상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	서~북서	0.5~1.5
	면바다	북서~북	1.0~2.0	서~북서	1.0~2.0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5
	면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면바다(서)	서~북서	0.5~1.5	북서~북	1.0~2.0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운동	60
빨래	7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시간	높이	시간	높이
여수	12:03	00:00	05:14	17:25
	07:09	19:20	01:00	13:01

◇주간 날씨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15(목)	16(금)
☀	☀	☀	☀	☀	☀	☀
10/22	11/20	11/21	11/22	10/23	11/23	11/23

광주 이산가족 3명 北 가족 만난다

전남은 한명도 포함 안돼

평안남도가 고향인 김인성(82·광주시 북구 두암동) 할머니 등 광주지역 이산가족 3명이 북한에 있는 그리운 가족을 만나게 된다. 전남지역 이산가족은 이번 상봉 명단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8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판문점에서 북한 조선적십자사와 '제20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최종 상봉 대상자 명단을 교환했다.

우리측 이산가족은 90명으로 오는 24~26일 금강산에서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고, 북측 이산가족 97명은 앞서 20~22일 같은 장소에서 남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게 된다.

우리측 이산가족 중 광주지역 거주자는 모두 3명이다. 거주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21명)로 나타났다. 출신지역별로는 전남 출신 문홍심(83) 할머니와 조경선(70) 할아버지가 상봉자 명단에 포함됐다.

북측 이산가족 중에서는 정규현(88·무안), 신귀중(85·담양), 리병학(82·영암), 선동기(81·광산구) 할아버지와 권금옥(81·곡성) 할머니 등 5명이 광주·전남 출신이다.

김인성 할머니는 오는 23일 아들, 딸과 함께 속초로 올라갈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상록회관 녹지 보전 대책 마련하라”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

광주환경운동연합이 8일 아파트 건설이 가시화된 도심 속 녹지공간인 상록회관 부지의 개발을 최소화할 것을 광주시에 촉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하려는 건설사를 상대로 일부

공간을 기부채납 받는 것은 녹지 보전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광주시를 향해 보다 적극적인 녹지보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왕벚나무 숲이 있어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온 상록회관 녹지공간이 훼손된다면 이는 광주시의 부실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호기자 khh@

2015 Heungbu Festival

우애·나눔·보은·행운

제23회 흥부제

흥부사랑

좁도리쌀 모으기운동

- 기간: 10월22일까지
- 접수: 읍면동, 남원국제봉사단체협의회
- 문의: 063)626-0036

일시: 2015. 10. 23(금)~25(일) **장소: 사랑의 광장 일원**

기념식축이공연 / 흥부놀이 줄판 한마당 / 흥부물 남원농악경연대회 / 백일장 / 그림그리기 대회 / 문화나눔행위 / 흥부 체험마당 / 전통외포제 / 청곡 흥부놀이 / 흥부사랑 떡나눔 등

주최: 남원시 · 주관: 흥부제전위원회 · 후원: 국립민속국악원 남원시 농·축협